

갓플리징 소책자 시리즈



복음이란 무엇인가

통합 본

최용진



GOD-PLEASING BOOKS

복음이란 무엇인가

발 행 | 2026년 7월 18일

저 자 | 최용진

펴낸이 | 최용진

펴낸곳 | 갯플리징북스

출판사등록 | 2011.11.30.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71번길 18-7

전 화 | 070-8065-4818

이메일 | thaigodpleasing@naver.com

ISBN | 979-11-91518-53-5 (05230)

정가 | 5,000원

© 최용진 2026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머리말

이 책은 독자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을 단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여섯 권의 내용은 하나님, 인간, 죄, 구원,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에 관한 기초적인 진리를 다룹니다.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 새신자,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살펴보기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성경을 함께 읽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하며, 각 장의 진리를 천천히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AI 해설영상과 AI 오디오북도 제작하였습니다.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 재생 목록에서 모든 영상을 시청하고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과 영상들을 사용하셔서 독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AI 해설영상



AI 오디오북

QR코드를 스캔하여 소책자 해설 영상을 보고 오디오북을 들으세요.

목차

머리말

제1권 복음이란 무엇인가

제2권 하나님이 정말로 있나요

제3권 칭의와 거듭남

제4권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하여

제5권 개혁신앙이란 무엇인가

제6권 성화와 죄죽임

제7권 선교와 선교사

저자소개



갓플리징 소책자 시리즈

복음이란 무엇인가

제1권

최용진



GOD-PLEASING BOOKS

제1권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을 바로 이해하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셔서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글은 성경에 나타난 복음, 곧 복된 소식(Good News)을 쉽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차분히 읽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신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하거나, 어릴 때부터 속해 있던 종교에 그대로 머물립니다. 어떤 사람은 신이 없다고 믿으며 자신의 능력과 돈을 의지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과 죄, 심판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는 단순한 취향이나 익숙함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실제로 참인가 하는 것입니다.

1. 종교가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해 주는가

많은 사람은 종교를 통해 모든 일이 잘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 위로를 얻고, 이웃을 돕거나 착한 일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사회에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종교적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유익한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종교가 죽음 이후의 삶과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낸 종교 체계나 철학은 인간의 경험과 생각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어떤 종교가 깊은 철학과 오랜 전통, 신비한 체험을 지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람이 죽은 뒤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하거나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힌두교와 불교 전통에서는 죽음 이후 윤회하여 다른 생을 산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깨달음이나 종교적 체험만으로 그 주장이 참이라는 사실을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돌고 도는 것일까요? 아니면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해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간의 지혜로 발견하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 내거나 조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발견했다는 원리나 신념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2.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일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면, 오직 그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죽음의 의미와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해 참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확증할 방법이 없다고 단정합니다. 여러 종교가 서로 다른 신을 말하기 때문에 신에 관해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신을 추구하면 결국 신의 은총을 입어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신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인간의 추측만으로는 확실한 답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죽음 이후의 일에 관해 확실한 답을 얻을 방법이 있을까요? 만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먼저 자신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어 분명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알려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3.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 주신 말씀

세상의 시작과 끝, 인간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분명히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사람과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세상에 왜 고통과 악과 불의가 존재하는지, 인간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며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시대와 환경에 살았던 여러 저자를 통해 기록된 예순여섯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창조와 타락, 심판과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전합니다. 성경의 통일성은 한 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읽혔고,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는 단지 오래되었거나 많이 읽혔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하며, 그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과 성취가 하나로 이어집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그 진실성과 권위를 사람의 마음에 확증하십니다.

성경은 단지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의 종교 사상을 소개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4.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에 관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알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만으로 알아낼 수 없는 하나님과 구원의 진리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자연과학 교과서처럼 창조의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한 영이시며, 거룩하고 선하시며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지식, 사랑과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불의를 심판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의 거룩함과 사랑과 공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므로, 모든 영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길 수 없습니다.

(2) 인간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여 특별하게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 생각하고 판단하며 선택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창조주로부터 독립된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선택하는 피조물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첫 사람 아담 안에서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온전한 상태를 잃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자유와 특권을 누리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주님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한 아담의 죄를 심판하셨고, 그 결과 죄와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려는 반역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3) 심판에 대하여

성경은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살아가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알거나 온전히 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주님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지만, 그러한 삶은 참된 행복에서 떠나 죄의 종으로 사는 삶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은 죄와 죽음과 고통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질병이나 재난을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과 죽음은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결과이며, 모든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죽음은 몸의 생명이 끝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은 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형벌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정한 기준으로 겉보기에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나누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과 동기와 행위를 완전히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분을 사랑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은 죄까지도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 아래 있으며, 자신의 의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4) 구원에 대하여

성경이 구원에 관하여 분명히 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며 자신의 힘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거나, 종교

적 행위로 공로를 쌓거나,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을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민지 않는 사람도 이웃을 돕고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어떤 선행도 이미 지은 죄를 씻거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동기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죄의 책임과 영원한 형벌에서 건짐을 받고,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화목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죽음 이후의 소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장차 몸의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기다리는 삶을 포함합니다.

이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5)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보여 줍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약 이천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된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 없이 완전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 하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이 들어온 것과 달리,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자기 백성을 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셨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 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담당하셨고, 그분의 부활로 죄와 죽음을 이기시며 그 속죄가 완성되었음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 의로운 자로 받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칭의(Justification)**” 라고 합니다. 칭의란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에게 전가하셔서, 그를 의로운 자로 받아들이시는 단번의 법정적 선언입니다. 칭의에 대해서는 갓플리징 소책자 시리즈 03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6) 구원에 이르는 방법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구주이며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믿겠다” 라고 말하거나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심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이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임을 의지하며,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주님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본래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은 그분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회개가 함께합니다. 회개는 단지 지난 잘못을 후회하거나 벌을 피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지불하는 공로나 대가가 아닙니다.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을 받도록 정하신 필수적인 수단이며, 이 믿음도 성령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결코 홀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선행은 구원의 값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7)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님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죄인에게 적용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한 뜻과 한 사랑으로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죄로 죽은 인간은 스스로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죽은 영혼을 새롭게 살리시고 마음을 여실 때,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성령님께서서는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시며, 말씀을 통해 삶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신자의 확신은 먼저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삶의 열매를 통해 더욱 굳세어집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5.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생 전하며 살기를 결심하게 했습니다.

이 짧은 소책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참된지 진지하게 살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참된 까닭은 많은 사람이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실제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와 종교적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그분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의지하고, 모든 삶의 참된 주님으로 인정하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만 인간은 참된 평안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시며,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을 근거로 죄를 용서하십니다.

정해진 기도문을 따라 읽는 행위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세례와 성찬, 예배와 교제, 기

도와 말씀이라는 은혜의 수단 안에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도를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소책자의 핵심

-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며 거룩하고 공의로운 주권자이십니다.
-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자신의 선행과 종교적 공로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십니다.
- 믿음과 회개는 공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며, 참된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갓플리징 소책자 시리즈

제2권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최용진



GOD-PLEASING BOOKS

제2권

하나님이 정말로 있나요

믿음의 길을 망설이는 사람을 위한 9가지 질문과 대답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도, 교회에 나가는 것도,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도 망설여지는 분들에게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드리는 글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에 관해 자주 제기되는 아홉 가지 질문을 다룹니다. 질문을 억누르거나 의심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감정과 경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눈을 감고 근거 없이 뛰어드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실험실의 물건처럼 측정한 뒤에야 인정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을 어떻게 알리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듣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1.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현미경이나 망원경으로 관찰하여 확인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경험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최종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아무 근거 없는 추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인간의 양심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셨고, 성경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특별히 알려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역사 속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버스 기사가 안전하게 운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일상적 신뢰와 같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음을 여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 생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의 이성 안에 완전히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되게 알 수 있을 만큼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참되심을 마음에 확증하십니다.

2.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나요?

세상의 불의와 고통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성공하며, 아무 잘못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질병과 재난을 겪는 현실은 우리를 깊이 혼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선택함으로 죄와 죽음과 고통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현재의 세상은 타락의 결과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마침내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나 재난을 그 사람의 특정한 죄에 대한 직접 형벌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욕의 고난이나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단순한 판단이 잘못임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선한 섭리를 이루시며, 신자의 고난은 정죄의 형벌이 아니라 연단과 돌보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못 본 척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사랑의 원리를 충분히 실천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 믿음은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3.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영원한 지옥에 보내실 수 있나요?

지옥의 교리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의 심각성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는가입니다. 죄는 사회법을 어기거나 양심에 찢리는 행동만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가장 높은 기준으로 삼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고 잔인한 분이 아니라 완전히 거룩하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사람의 겉모습뿐 아니라 생각과 동기와 행위를 모두 아시며, 각 사람을 조금도 잘못 없이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최후 심판 이후의 형벌을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과도하다는 뜻이 아니라, 죄와 하나님을 거절하는 상태의 심각성과 최종성을 보여 줍니다. 복음의 놀라움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없던 일로 하셨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부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여 성자를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께서서는 자원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4. 사람이 죽은 뒤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윤회나 사후세계에 관한 여러 주장은 인간의 철학과 종교적 전통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는 사람이 경험을 통해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역사는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이 아니라, 창조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몸의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전쟁과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특정 날짜를 정해 세상의 끝을 예언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쟁과 지진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날짜를 계산할 수 없다고 하셨으며, 그 날과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날짜를 계산하는 대신 언제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미 성취된 예언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 줍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재림과 최후 심판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근거합니다.

5.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왜 나쁜 사람이 많나요? 다 용서받는다고 하니 더 죄를 짓는 것 아닌가요?

교회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말과 탐욕, 폭력과 성적 범죄를 저지른 일 등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지도자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를 숨기거나 조직을 보호하기보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회에 등록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자동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종교적 습관으로 교회에 다니지만 복음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참된 신자도 여전히 연약하여 죄에 넘어질 수 있지만, 죄를 정당화하거나 편안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묻고 “그럴 수 없다”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는 면허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죄와 싸우며 사랑과 정직과 거룩의 열매를 맺어 갑니다.

교회는 단지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위로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모여 예배하고, 복음을 배우며, 성례에 참여하고,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6. 교회는 왜 금주, 헌금, 모임 참석 등 요구하는 것이 많나요?

교회가 사람의 양심을 함부로 얹어매거나, 돈과 시간과 순종을 강압적으로 요구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지도자의 말이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가질 수 없으며, 헌금은 복을 사거나 구원을 얻는 대가가 아닙니다. 교회는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가난한 이웃과 복음 사역을 섬겨야 합니다.

술에 관해 성경은 취함을 명백히 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음주를 동일한 방식으로 정죄하는 문제에서는 교회마다 목회적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중독과 가정폭력과 사고를 낳는 술의 위험을 진지하게 경고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담배도 성경에 직접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몸의 청지기직과 중독과 이웃에게 주는 피해라는 원리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와 교회 모임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한 값을 치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 죄책감과 두려움을 사용하는 것은 복음적인 목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현재 삶이 정돈되지 않은 사람도 복음을 듣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부르시며,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7. 기독교는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나요?

기독교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자신의 종교가 더 우월하다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들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개라는 비유는 처음부터 모든 종교가 같은 하나님과 같은 구원을 향한다는 전제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들은 하나님, 인간의 문제, 구원과 죽음 이후에 관해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주장들이 동시에 모두 참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이유는 오직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시고, 죄 없이 완전하게 순종하셨으며, 죄인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는 구원의 길을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를 교만하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도,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진리를 숨기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8. 기독교가 참되다면 왜 그렇게 교파가 많나요?

기독교의 여러 교파가 존재하는 데에는 역사와 문화, 교회 제도, 세례 방식, 예배 형식 등에 관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열 과정에서 인간의 욕심과 정치적 갈등이 개입된 경우도 있으며, 교회는 그 죄를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차이가 복음의 핵심을 흔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통 기독교 교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과 인성, 십자가와 부활, 성경의 권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구원과 같은 핵심을 함께 고백합니다. 이런 공통 고백 안에서 교회 제도나 세례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 십자가의 대속, 부활, 성경의 최종 권위, 은혜로 받는 구원을 부정하는 단체까지 정통 교회의 한 교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만 사용한다고 모두 같은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교파의 존재는 진리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진리를 받은 사람들조차 여전히 제한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자신을 절대화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9. 저는 교회에서 사기를 당하고 상처를 받았습니 다. 다시 교회에 가야 하나요?

교회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와 학대와 조종을 당했다면, 그 고통은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무조건 용서하고 돌아오라고 압박해서도 안 됩니다. 범죄는 적절한 기관에 알리고, 안전을 확보하며, 필요한 법적·의학적·심리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처를 준 지도자나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과 동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학대를 미워하시며, 자신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람을 해치는 일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고통 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시 같은 장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처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과 복음까지 영원히 거절하지는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성도와 상담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권력과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전한 교회를 천천히 찾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은 유일하신 창조주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우리가 누려야 할 영원한 생명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살아 계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질문을 이유로 진리의 문제를 끝없이 미루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충분히 알리셨는지 직접 살펴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교회의 완전함이나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우월함이 아닙니다. 중심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죄는 책망받아야 하지만, 사람의 실패가 그리스도의 진실성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자신의 선함이나 종교적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십시오.

이 소책자의 핵심

-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 세상의 악과 고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 구원은 사람의 공로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의에 근거합니다.
- 교회의 죄는 정직하게 책망하고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리스도와 복음까지 버릴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모든 교회는 성경의 권위 아래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갓플리징 소책자 시리즈

제3권

칭의와 거듭남

최용진



GOD-PLEASING BOOKS

제3권

칭의와 거듭남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깊이 알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죄와 그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 가게 하시며,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

칭의(Justification)와 거듭남(Regeneration)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교리입니다. 교리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교회가 성경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핵심 교리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교리를 매우 가볍게 여기는 시대라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체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바르게 믿을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종교적 느낌이나 개인적인 체험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바르게 믿을 때 참된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정보다 자신의 경험이나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을 더 의지한다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 만들어 낸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신학자처럼 교리의 모든 세부적인 문제를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에 관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분명하게 배우고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천천히 반복하여 읽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구원이란 무엇인가?

칭의와 거듭남의 교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구원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과과는 다릅니다. 기독교 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가난이나 질병, 실패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의 형벌과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죄의 형벌에는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자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죄로 기울어진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실제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2.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는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가르치는 동시에, 완전히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며 모든 죄를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포기하시거나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으십니다. 또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랑을 버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모든 성품에 완전하게 일치하도록 행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욕망과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이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뜻을 선택했습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나 부족함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며,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포함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기실 수 없습니다. 인간 재판관조차도 악한 범죄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무죄로 판결한다면 정의로운 재판관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는 없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죄의 형벌이 정당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3.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은 죄는 이후에 행한 선행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행은 죄의 형벌을 대신 지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죄인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길 능력을 잃었습니다.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며, 자신의 생각과 욕망과 선택까지도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착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뿐 아니라 마음과 동기까지 살펴보십니다. 사람의 선행에는 교만과 자기 중심성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구원의 길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으며,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나타내셨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으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4.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의 모범으로만 설명합니다. 물론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지 사랑의 본이나 도덕적 희생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보다 죄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가 없으신 의인이셨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 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죄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은 죄인을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형벌을 완전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마음을 바꾸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성부와 성자의 뜻이 서로 달랐던 사건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으며, 죄와 죽음의 권세가 패배하였음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랑과 희생의 본을 보여 주셨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소식입니다.

5. 칭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심

이제 첫 번째 중심 주제인 칭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칭의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셔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판결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실제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칭의는 죄인의 내면을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화와 구별됩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죄인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선언입니다. 죄인은 본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유죄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로운 자로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한 사람이 자신의 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죄인에게는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없는 완전한 의가 필요합니다.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셨습니다.

6.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죽으실 것을 나타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속죄를 미리 보여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죄인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는 자신의 죄책이 제물에게 전가되고, 그 제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다는 사실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 자체가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실 완전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 주는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고 완전한 속죄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고, 예수님께서서는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도후서 5장 21절)

칭의에는 죄 사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믿는 사람의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아담과 모든 사람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의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전가란 한 사람에게 속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이것이 칭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칭의는 죄인이 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려지는 판결이 아닙니다. 죄인이 충분히 회개하거나 자신의 삶을 고쳤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칭의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유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근거는 우리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사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시며, 다시는 그 죄를 근거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부분적이거나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한 번에 완전하게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칭의 받은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서 죄와 싸우며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신분은 그 사람의 성화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자신의 공의를 무시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정당하게 심판하셨기 때

문에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시면서도 여전히 의로우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6절)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7.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결단이 구원에 어떤 공로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구원받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고 사람 자신에게 두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믿음 자체가 구원의 공로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대속의 죽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는 수단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성인이 된 아들에게 자동차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건네주는 자동차 열쇠와 등록 서류를 손으로 받았습니다. 친구가 그 아들에게 “그 자동차를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들이 “내가 손을 내밀어 열쇠와 서류를 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한다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뭔가 어색합니다.

더 정확한 대답은 “아버지가 선물로 주셨어” 라는 말일 것입니다. 아들이 자동차를 얻게 된 것은 자신의 손을 내민 행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랑으로 아들에게 자동차를 선물해 준 것입니다. 손은 단지 그 선물을 받는 수단이었습니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손과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의 공로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 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다른 선행보다 더 중요한 공로로 세우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나 헌신, 회개나 결단도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참된 믿음과 함께 나타나는 중요한 열매이지만, 죄인을 의롭게 하는 공로는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죽은 사람은 스스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인정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조차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시작과 지속과 완성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8. 구원하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 번 감정적으로 결단하거나, 어떤 기도문을 따라 하거나,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은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단지 한순간의 말이나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그것이 참되다고 받아들이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에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참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의 선행과 종교적 공로와 능력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단지 도움을 주는 분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이자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최종 권리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회개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회개란 단지 죄를 지은 뒤 미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서로 다른 두 행동이지만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즉시 완전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여전히 연약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죄와 평안하게 공존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한순간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믿음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강하고 확신에 차 있을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의 믿음은 약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믿음이 붙드는 대상입니다. 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반대로 강한 확신과 종교적 열정이 있더라도 잘못된 복음이나 자신을 의지한다면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안식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삶의 열매를 낳습니다. 그 열매가 칭의의 근거는 아니지만, 믿음이 살아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9. 믿음과 행위는 어떤 관계인가?

성경은 사람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동시에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르침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사람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의 신분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의 마음과 삶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한 행위는 칭의의 뿌리가 아니라 칭의와 거듭남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변화가 전혀 없고, 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다면 자신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의 열매를 근거로 자신의 구원을 얻으려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의 확신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에 근거합니다. 삶의 열매는 그 믿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보조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변화 정도를 바라보며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10. 거듭남: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남

이제 두 번째 중심 주제인 거듭남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마음과 성향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거듭남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선택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그리스도께 나아갈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적대적이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마음을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는 단순한 교육이나 감정적인 감동이나 도덕적인 개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남을 통하여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를 사랑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새로운 성향을 주십니다. 이전에는 복음이 어리석고 불필요하게 보였지만,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알게 됩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존재 전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욕망이 새로워지며, 삶의 방향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사람이 즉시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평생 죄와 싸우며 성화되어 갑니다. 거듭남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성화는 그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11. 칭의와 거듭남은 어떻게 다른가?

칭의와 거듭남은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이지만, 서로 같은 것은 아닙니다.

- 칭의는 죄인의 법적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 거듭남은 죄인의 내면과 성향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 칭의에서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으로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 거듭남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죄인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 칭의는 우리 밖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합니다.
- 거듭남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변화입니다.
- 칭의는 한 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 거듭남도 단번에 일어나는 생명의 시작이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와 성화는 평생 계속됩니다.
- 칭의는 정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완전한 의를 받습니다.
- 그러나 거듭남 이후에 나타나는 성숙과 성화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칭의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 거듭남은 선한 행위의 원인이 됩니다.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거듭난 이후의 삶의 변화를 칭의의 근거로 삼는다면, 우리는 다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칭의만을 말하면서 거듭난과 삶의 변화를 부정한다면, 복음을 단지 죄를 용서받는 선언으로만 축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의롭다 하시는 사람을 또한 새롭게 하십니다. 칭의와 거듭난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12.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의 방향이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자신의 죄를 합리화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죄로 인식하고 회개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성공과 만족과 사람의 인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무시했지만, 이제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다른 신자들을 단지 종교 집단의 구성원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속도와 같은 정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매우 분명한 변화를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크기보다 방향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는 넘어질 수 있지만 죄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께 나아옵니다. 그는 자신의 힘만으로 변화하려 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13. 거듭남과 삶의 열매

삶의 열매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다. 삶의 열매는 거듭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나무가 살아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과 회개와 순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 구원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열매가 전혀 없는 상태를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이라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 열매는 완전하지 않으며 때로는 약하고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에게서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새로운 성향이 존재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그는 죄와 싸우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 갑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와 선행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14. 구원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칭의와 거듭남의 교리는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신의 선행이나 믿음이나 결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하게 순종하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시며, 그를 자신의 자녀로 받아 주십니다. 또한 성령으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자신의 믿음의 강도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러나 값싼 은혜에 머물지도 마십시오. 참된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지 않습니다. 참된 은혜는 죄인을 용서할 뿐 아니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서 죄 사함과 완전한 의를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에 대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이 소책자의 핵심

- 칭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여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죄를 미워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갓플리징 소책자 시리즈

제4권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하여

최용진



GOD-PLEASING BOOKS

제4권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하여

교회, 주일, 예배, 설교, 찬양, 기도, 세례, 성찬, 전도, 선교, 성경에 대하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기본적인 용어와 그 의미를 설명한 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궁금한 내용부터 천천히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1. 교회

교회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 간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본래 건물 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불러내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단지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믿는 사람들은 그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성도들의 성격과 배경과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는 한 지역에 실제로 모이는 지역교회를 뜻하기도 하고(보이는 교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참된 신자를 가리키기도합니다(보이지 않는 교회).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함께 말씀을 배우고, 회개하며, 서로 사랑하고, 거룩하게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서로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참여합니다.

성도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며,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사랑으로 권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주신 하나 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지역교회에 속하여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고, 성례에 참여하며,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2. 주일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며,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의 첫날인 일요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주의 첫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부활의 생명과 새로운 창조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일 예배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영원한 예배와 안식을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쉬신 일을 기억하게 했고, 신약의 주일은 그 참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주일은 단지 교회에 한 시간 다녀오는 날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관심과 활동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복을 얻기 위한 공로나 자신을 의롭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3. 예배

예배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경외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 앞에서 두려워하며 동시에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공적 예배에서 교회는 하나님

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헌금하고, 세례와 성찬을 시행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사람의 즐거움이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경이 계시하는 참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예배라는 말은 공적 예배를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적 예배는 삶의 예배를 세우고, 삶의 예배는 공적 예배에서 고백한 믿음을 실제로 드러냅니다.

4. 설교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설명하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단순한 강연이나 종교적 조언, 설교자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설교의 중심은 언제나 성경이어야 합니다.

설교자의 말이 권위를 갖는 이유는 그의 직분이나 인격 자체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뜻을 바르게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경외심으로 들으면서도, 설교의 내용이 실제로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좋은 설교는 성경 본문을 충실히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드러내며,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선포하며, 삶에 적용하게 합니다.

설교는 성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며 묵상해야 합니다.

5. 찬양

찬양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을 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노래에만 제한되지 않고 기도와 감사와 순종도 포함합니다.

찬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의 감정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멜로디뿐 아니라 가사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소리의 아름다움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찬송할 때에는 가사의 뜻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이 그 고백과 일치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생활 속에서는 정반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거짓말하고 쉽게 불평하는 태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참된 찬양은 고통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6. 기도

기도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종교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격이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기도에는 찬양, 감사, 죄의 고백, 간구,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기도의 중심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시

며,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 주는 도구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가 구한 그대로일 수 있고, 기다리게 하거나, 다른 것을 주거나,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오”와 “기다리라”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떤 느낌이나 내적인 인상을 곧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최종 기준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기도할 때에는 이미 주신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7. 세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명령하신 성례입니다. 성례는 보이는 표와 행동을 통하여 복음의 약속을 나타내고 확증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세례는 단순한 교회 가입 절차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죄 씻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속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세례 자체가 사람을 자동으로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세례 방식에는 침례, 물 붓기, 물 뿌리기 등이 있지만 효력은 물의 양이나 방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의 책임 아래 바르게 시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믿는 부모의 자녀에게 유아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유아세례는 아이의 자동 구원을 뜻하지 않으며, 그 아이가 부모의 고백 아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부모와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다는 언약의 표입니다.

8. 성찬

성찬 또는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명령하신 두 번째 성례입니다. 교회는 떡과 잔을 나누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잔은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새 언약의 피를 나타냅니다.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며, 예수님이 성찬에서 다시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단 한 번에 이루어졌고 완전합니다.

성찬은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식사입니다. 성도는 한 떡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고백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는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만 참여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복음을 믿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은 죄를 고집하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찬의 유익은 떡과 잔 자체의 마술적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을 의지할 때 받게 됩니다.

9. 전도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교회 모임에 데려오는 일이나 기독교의 장점을 소개하는 일, 혹은 자신의 간증을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회심하게 하

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분명하고 정직하게 전하며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죄와 심판, 회개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제자의 삶도 포함됩니다.

전도는 다른 종교와 문화를 무시하거나 논쟁에서 이기는 일이 아닙니다. 진리를 분명히 말하되 사랑과 온유와 존중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전도는 교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일이 아니며, 사람을 억지로 결단하게 하거나 믿음의 고백을 강요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 선교

선교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제자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사역을 말합니다.

교육, 의료, 구제, 지역개발은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선교의 최종 목적은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과 교회 세움입니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되 복음의 진리를 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성경의 명령처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선교는 몇몇 선교사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는 기도, 후원, 섬김, 번역, 돌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선교의 목표는 외부인이 계속 주도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지 성도와 지도자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스스로 교회를 섬기도록 돕는 것입니다. 선교의 가장 큰 목적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선교와 선교사에 관하여는 제7권에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11. 성경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구원 계획을 알리시기 위하여 주신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모두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준비하며,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증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원본은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기록하게 하신 모든 내용에서 참되며 오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삶을 위한 최종 권위입니다. 교회의 전통, 목회자의 가르침, 신학자의 책, 개인적 체험은 모두 성경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진리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며 늘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한 구절만 떼어 자신의 생각에 맞게 사용하지 말고, 앞뒤 문맥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살피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지식을 쌓는 데만 있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교회에 처음 나오면 낯선 말과 예배 방식과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생활은 새로운 종교 습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함께 자라 가는 삶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은 부족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거나 실망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완전함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명백한 거짓 가르침이나 심각한 영적 학대가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참고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충실히 전하고 복음을 분명히 고백하며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건강한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받기만 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소책자의 핵심

-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주님의 날입니다.
-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설교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을 높이는 마음과 말과 삶이며,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의 교제입니다.
-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성례이며, 복음을 나타내고 확증합니다.
-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선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무오하고 충분한 말씀이며 우리의 믿음과 삶을 판단하는 최종 권위입니다.
- 교회생활의 중심은 사람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갓플리징 소책자 시리즈



개혁신앙이란 무엇인가

제5권

최 용 진



GOD-PLEASING BOOKS

제5권

개혁신앙이란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로 이해하는 신앙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말

개혁신앙 혹은 개혁주의신학, 칼빈주의는 칼빈이라는 한 사람의 사상이나 특정 교파의 전통을 절대화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개혁신앙은 교회와 신자의 모든 믿음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 끊임없이 바로 잡으려는 신앙입니다.

개혁신앙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시며, 성경이 믿음과 삶의 최종 권위이고,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실제로 구원하신 완전한 구주이시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의 한 이야기이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는 개혁신앙의 핵심을 여섯 가지 주제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다섯 솔라

다섯 솔라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복음을 간결하게 요약한 고백입니다.

(1) 오직 성경

성경만이 교회와 신자의 믿음과 삶을 판단하는 최종 권위입니다. 교회의 전통, 목회자의 가르침, 개인의 체험과 감정도 모두 성경의 판단 아래 있어야 합니다.

(2) 오직 은혜

죄인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3) 오직 믿음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는 수단입니다.

(4)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며 구주이십니다. 사람의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이나 다른 영적 존재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5)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구원의 계획과 성취와 적용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구원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다섯 줄라는 서로 떨어진 표어가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의 기준이고, 은혜는 구원의 근원이며, 그리스도는 구원의 근거이고, 믿음은 구원을 받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2. 은혜의 교리

은혜의 교리 혹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은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합니다. 전문용어보다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란 모든 사람이 가능한 모든 악을 다 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리스도께 나아갈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2)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의 미래 선행이나 믿음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유롭고 은혜로운 뜻에 따라 구원할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의 이유는 사람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3) 실제적 속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을 열어 놓은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실제로 담당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막연하거나 불확실한 희생이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지 아셨고, 그들의 죄값을 실제로 지불하셨으며,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개혁신앙이 강조하는 확정적 속죄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제한속죄

라고 부르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한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속죄가 자기 백성을 실제로 구원하는 구체적이고 완전하며 성공적인 속죄라는 뜻입니다.

(4) 효력 있는 부르심

복음은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오는 폭력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은혜입니다.

(5) 성도의 견인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믿음 안에 보존하십니다. 성도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며,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다시 이끄십니다. 은혜의 교리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하기로 뜻하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구원하십니다.

3. 언약으로 읽는 성경

개혁신앙은 언약신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맺으시는 주권적인 관계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서로 관계없는 여러 이야기와 교훈을 모은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창조와 인간의 책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인류는 죄와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은혜언약의 약속 사람이 타락한 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통하여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새 언약 구약의 제사와 성전과 제사장과 왕은 모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언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참된 제사장이시며, 완전한 희생 제물이시며,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졌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신학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시대의 죄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일관성을 보여 줍니다.

언약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각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4.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개혁신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뒤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와 나라와 자연과 사람의 삶과 구원의 모든 일을 자신의 지혜롭고 선한 뜻에 따라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운명론과 다릅니다. 운명론은 사람이 무엇을 하든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책임이나 노력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주권적으로 일하시면서도 사람의 실제 선택과 행동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 죄에 책임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이 두 진리가 함께 나타납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뜻으로 예수님을 죽였고 그 행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해서 기도와 전도와 노력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전도와 순종을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더욱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이 우연과 혼란에 지배되지 않으며, 고난도 하나님의 손 밖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위로로 줍니다.

5.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참된 기쁨

개혁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없는 영광을 더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은혜를 인정하고,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삶을 통하여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는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내적인 태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것, 감사와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 두려움과 열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참된 기쁨은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을 따라 살 때

자유롭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돈과 성공과 인정과 안전은 영혼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기뻐할 때 창조된 목적에 맞는 참된 만족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과 기쁨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교회 안의 활동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돈을 바르게 사용하고, 약한 사람을 돌보고, 말과 욕망을 절제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6. 개혁신앙으로 살아가기

개혁신앙은 교리 지식을 많이 아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참된 교리는 반드시 예배와 인격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에 따라 사십시오. 성경을 읽고 배우며, 자신의 생각과 문화와 경험을 말씀의 판단 아래 두십시오.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만 따르지 말고, 불편한 말씀에도 순종하십시오.

은혜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멸시할 수 없습니다. 자신도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개혁신앙은 개인주의적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에 속하여 말씀을 배우고, 성례에 참여하며,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자라가십시오.

소명을 따라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목회나 선교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정과 직업과 일상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충성하십시오.

고난 속에서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도 하나님의 손 밖에 있지 않음을 믿으며 인내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붙드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은 전도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부르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리적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개혁주의라는 이름이나 지식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리를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참된 개혁신앙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더 겸손하게 섬기게 합니다. 교회와 신자는 항상 성경에 따라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대의 유행에 맞추어 진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잘못을 계속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 소책자의 핵심

- 개혁신앙은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신앙입니다.
- 다섯 솔라는 복음의 기준과 근원과 근거와 수단과 목적을 보여 줍니다.
- 은혜의 교리는 죄인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가르칩니다.
-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지 구원의 가능성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구원을 실제로 이루신 확실하고 완전한 속죄입니다.
- 언약신학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임을 보여 줍니다.
- 하나님의 주권은 운명론이 아니며, 인간의 책임과 기도와 전도와 순종을 없애지 않습니다.
-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 개혁신앙은 단순한 교리 체계가 아니라, 성경에 순종하고 은혜를 의지하며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입니다.

갓플리징 소책자 시리즈



성화와 죄죽임

제6권

최용진



GOD-PLEASING BOOKS

제6권

성화와 죄죽임

그리스도인의 삶, 죄와의 싸움을 바르게 이해하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죄 사함의 기쁨과 함께 죄와 싸우며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자라 갑니다.

들어가는 말

제3권 “칭의와 거듭남”에서는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듭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그 뒤를 이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으로 자라 가는지를 다룹니다.

성화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구원하신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죄를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죄와의 싸움은 때로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정죄를 피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이 자유와 기쁨을 향하여 싸우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1.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는 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죄의 지배를 점점 약화시키고,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가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서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 칭의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죄인을 단번에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 성화에서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실제 삶을 평생에 걸쳐 변화시키십니다.
- 칭의는 완전하며 반복되지 않습니다.
- 성화는 아직 불완전하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 확신은 성화의 성취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

화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화는 사람의 의지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피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을 의의 도구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수동적인 태도도 아니며, “내 힘으로 나를 바꾼다”는 자기구원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2. 그리스도인은 왜 계속 죄와 싸우는가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죄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는 더 이상 성도를 지배하는 왕은 아니지만, 계속 유혹하고 속이며 순종을 방해하는 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계속 그 지배 아래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참된 성도도 심각하게 넘어질 수 있고, 같은 죄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죄에 무감각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그리스도께 나아가 싸우게 하십니다.

죄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새 생명이 있다는 중요한 열매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표지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죄 없는 완전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성숙을

자랑하기보다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며 죄를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3. 죄죽임이란 무엇인가

죄죽임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죄의 욕망과 습관과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명령할 때, 육체를 확대하거나 몸 자체를 악하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와의 싸움의 핵심은 특별한 말로 사탄을 결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유혹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할가 장가까운 적은 자기 안의 죄입니다.

죄죽임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나쁜 행동을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 뒤에 있는 욕망, 두려움, 교만, 불신, 자기 사랑을 살피야 합니다. 뿌리를 다루지 않으면 같은 죄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후회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들킨 것과 손해 본 것을 슬피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스른 죄 자체는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한 죄를 다른 죄로 바꾸는 것도 죄죽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 때문에 분노를 억누르거나, 교만으로 탐욕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죄죽임의 목적은 단지 더 단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죽임과 함께 새 사람의 삶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며, 도둑질을 그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을 돕고, 분노를 억누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4. 죄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죄와의 싸움에는 한 번에 모든 문제를 없애는 비밀 공식같은 것은 없습니다. 성도는 다음의 은혜로운 방편을 꾸준히 사용하며 싸워야 합니다.

(1) 죄를 구체적으로 인정하십시오

막연히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만 말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욕망 때문에 어떤 죄를 범했는지 정직하게 살피십시오. 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2) 유혹의 통로를 끊으십시오

자신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을 때, 어떤 감정 상태에서 쉽게 넘어지는지 파악하십시오. 죄를 자극하는 환경과 습관을 피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순종입니다. 반복해서 넘어지게 하는 물건, 장소, SNS, 관계, 시간 사용 등을 실제로 정리해야 합니다.

(3) 생각과 욕망을 말씀으로 살피십시오

죄는 행동 전에 생각과 욕망에서 자랍니다. 마음속의 합리화와 거짓말을 발견하고 성경의 진리로 반박하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다”, “나는 피해자이니 그럴 수 있다”, “아무도 모른다” 는 생각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4)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결심만 믿지 말고 유혹을 느끼는 즉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미루지 말고 반응하십시오. 기도는 죄와 싸우기 위한 준비만이 아니라 실제 싸움의 한 부분입니다.

(5) 그리스도와 복음을 바라보십시오

죄와의 싸움에서 자신의 실패만 바라보면 절망하거나 위선에 빠짐.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 안에서 싸웁니다.

(6) 반대되는 순종을 실천하십시오

죄를 피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죄와 반대되는 선을 행하십시오. 탐욕과 싸운다면 나누고, 교만과 싸운다면 섬기며, 음란한 생각과 싸운다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미움과 싸운다면 구체적으로 용서하고 축복하십시오.

(7) 넘어졌을 때 즉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실패를 가볍게 여기지 말되, 실패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도망치지도 마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과하고 바로 잡으십시오. 같은 죄에 여러 번 넘어졌더라도 죄와 화해하지 말고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5.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실 때 보통 정하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한 체험만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수단을 꾸준히 사용하십시오.

말씀은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보여 주며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바르게 해석된 설교를 듣고, 배운 말씀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기도는 자신의 의지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행동입니다.

공예배와 **성례**는 복음의 약속을 반복하여 듣고 보게 합니다. 성도는 혼자만의 결심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교제: 믿을 만한 성도와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숨겨진 죄는 고립 속에서 강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자신의 약함을 알리고 기도와 권면과 점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십시오. 정죄하거나 소문내는 태도는 회복을 방해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죄를 다루고, 넘어지는 사람을 온유하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6. 성화의 목적과 소망

성화의 목적은 단지 사회적으로 착하고 단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며,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기쁨의 반대가 아닙니다. 죄는 자유와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결국 사람을 묶고 파괴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창조된 목적에 맞는 자유와 기쁨을 배웁니다.

성화가 더디다고 느껴질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완성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완전해지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화롭게 되어 죄의 존재와 영향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을 방해 없이 사랑하고 기뻐하며 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와의 싸움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연약함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고, 남아 있는 죄보다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합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믿으며 작은 순종을 계속 이어가십시오.

이 소책자의 핵심

-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변화입니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 죄와 싸워갑니다.

갓플리징 소책자 시리즈 07



선교와 선교사

교회와 성도가 함께 감당하는 복음의 사명

최용진



GOD-PLEASING BOOKS

제7권

선교와 선교사

교회와 성도가 함께 감당하는 복음의 사명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8

들어가는 말: 선교는 누구의 일입니까?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먼저 먼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선교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몇 사람의 일이고, 일반 성도는 기도와 재정으로 그들을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선교사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교회에 맡기셨고, 교회는 그 복음을 가까운 이웃과 모든 민족에게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방식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파송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보내며 돌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이웃과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사도 성도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죄와 연약함을 가진 한 사람의 성도이며, 교회의 파송을 받아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소책자는 선교사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선교가 무엇인지, 교회는 선교사와 어떻게 동역해야 하는지, 일반 성도는 자신의 자리에서 어떻게 선교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는 책입니다.

선교는 몇 사람에게 맡겨진 특별 사업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주님의 사명입니다.

1. 선교란 무엇인가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가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있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선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선교는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거나 낯선 문화를 돕는 일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죄인을 회개와 믿음으로 부르며, 믿는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사명은 사람의 열정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교회를 모든 민족에게 보내셨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교회에 맡기신 일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며 자신의 선행과 종교적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선교는 바로 이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며,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사람을 잠시 교회 행사에 참여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로 나아갑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예배당을 짓거나 모임을 조직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모인 백성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배우며, 함께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되어야 합니다.

현지 지도자를 세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책을 주거나 책임을 빨리 넘기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며,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데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구제와 교육, 의료와 지역사회 봉사도 귀한 섬김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섬김이 복음 선포와 교회 세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몸과 삶을 돌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선교사는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죄와 회개,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약화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는 복음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도록 도와야지 복음의 내용을 바꾸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새 생명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반응을 억지로 만들어 내려 하지 않고,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선교의 마지막 목적은 선교사나 교회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선교는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2. 선교사와 성도의 삶

특별한 계급이 아니라 타문화권에 파송받은 성도

선교사는 우리와 다른 종류의 신자일까요?

교회는 때때로 선교사를 특별한 영적인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큰 희생을 감당했으니 믿음도 더 강할 것이라 생각하고, 쉽게 지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도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그도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며, 날마다 복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해 살아가야 합니다.

선교사의 특별함은 더 높은 신앙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맡은 사역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시간과 재능과 소유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선교사는 이 동일한 제자의 삶을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감당하도록 교회가 파송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선교사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특별하니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같은 충성과 헌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선교사는 사역의 결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자신을 높이고, 열매가 더디다고 자신의 존재까지 실패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의 정체성은 사역의 성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진리는 모든 성도에게도 같습니다. 성도는 직업의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 교회에서 맡은 역할로 자신의 가치를 세우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선교사의 삶은 그가 전하는 복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가정에서는 사랑 없이 살고, 은혜를 가르치면서 사람을 이용하며, 정직을 말하면서 사역을 과장한다면 그의 증언은 약해집니다. 선교사는 배우자와 자녀를 돌보고, 돈과 관계에서 정직하며, 실패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 역시 선교사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도 선교사를 잘못 바라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선교사를 실패해서는 안 되는 영웅이나 계속 성과를 보여 주어야 하는 전문 사역자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높이는 것도 옳지 않고, 후원받는 일꾼으로만 대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선교사는 교회의 파송을 받은 한 지체입니다. 기도와 격려가 필요하고, 때로는 쉼과 상담과 목회적 돌봄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선교사의 결과만 묻지 말고 그의 영혼과 가정도 살펴야 합니다.

교회가 선교사의 사역을 살필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규모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지,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는지, 정직하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선교사는 특별한 종류의 성도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맡겨진 믿음과 순종의 삶을 타문화권에서 감당하도록 파송받은 우리의 지체입니다.

3. 교회는 선교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파송하고 동행하며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한 사람을 선교지로 보낸 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교는 선교사 개인의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복음을 맡기셨고, 교회는 복음과 교리와 삶으로 사람을 준비시켜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개인적인 열정만으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지역 교회는 그의 부르심과 신앙, 인격과 가정,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과 협력하는 태도를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열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외로움과 갈등, 오랜 기다림과 더딘 열매를 감당하려면 복음과 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먼저 충성하고, 사람을 섬기며, 권면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보낸 뒤 잊어서도 안 됩니다. 재정을 보내고 사역 보고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교사의 영적 상태와 건강, 부부 관계와 자녀, 쉼과 재충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선교사가 지치거나 갈등을 겪을 때 무조건 더 견디라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쉬게 하고, 치료받게 하며, 사역을 조정하거나 귀국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선교사의 성과보다 복음에 대한 충실성을 살펴야 합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 건물을 얼마나 세웠는지, 세례를 몇 명에게 베풀었는지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다고 건강한 선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성경을 배우고 있는

지, 현지 지도자가 말씀과 인격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 교회가 선교사 개인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선교 예산도 같은 기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눈에 잘 보이는 건물과 행사뿐 아니라 복음 전도, 성경 번역, 교리교육, 현지 지도자 양육, 신학 교육, 문서와 미디어 사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선교는 몇몇 선교위원만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예배에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과 교육을 통해 선교의 의미를 가르치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세계선교를 소개해야 합니다. 한 선교사나 한 지역과 오래 관계를 맺고, 교회 전체가 소식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선교단체는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를 보내고 돌보는 교회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와 선교단체가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선교사는 현장에서 섬기고, 교회는 기도와 재정과 목회적 돌봄으로 함께 책임집니다. 이 동역이 있을 때 선교는 한 사람의 외로운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 순종이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사를 멀리 보내고 소식을 기다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돌보며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4. 성도는 전도와 선교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자신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복음의 사명

해외로 떠나지 않는 성도는 선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성도가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은 성도라면 누구도 교회에 맡겨진 선교의 사명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참여는 먼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성도는 가정과 직장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삶만으로 복음이 충분히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말로 전해져야 합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죄와 회개, 믿음과 구원을 설명해야 합니다. 사람을 교회에 초대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초대만으로 전도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일상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질문을 들으며,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나눕니다.

2.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특정 선교사와 국가와 종족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현지 교회와 지도자, 성경 번역과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3. 정기적으로 후원합니다. 일회성 감동보다 꾸준한 동역을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업뿐 아니라 복음 전도와 제자훈련, 지도자 양육과 교회 개척도 지원해야 합니다.

4. 선교사와 관계를 맺습니다. 사역 결과만 묻지 말고 선교사와 가족의 삶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선교편지를 읽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필요한 때 실제적인 도움을 나눕니다.

5. 직업과 은사를 사용합니다. 의료, 교육, 번역, 미디어, 기술, 상담, 행정과 같은 전문성도 복음과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보내심의 가능성을 열어 둡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교회의 훈련과 검증을 받아 직접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 모든 참여는 개인적인 선행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보내며,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은 반드시 큰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선교사의 소식을 꾸준히 읽는 일, 한 종족을 정하여 기도하는 일, 한 이웃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일도 선교적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해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보내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5. 가까운 민족에서 모든 민족까지

이주민 선교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우리가 먼 나라로 가지 못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사람을 우리 곁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결혼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이 우리 주변에 살아갑니다. 그들 가운데는 자기 나라에서는 복음을 접하기 어려웠던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을 낯선 외국인이나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보내신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주민 선교는 거창한 행사보다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인사하고 이름을 묻는 일, 식사를 함께하는 일, 언어와 병원과 행정 절차를 돕는 일, 자녀의 학교생활을 살피는 일에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절만으로 선교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조금하게 결단을 강요 하지 말고, 성경을 함께 읽고 질문을 들으며,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서 자라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주민은 선교의 대상일 뿐 아니라 복음을 자기 민족에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그들은 이미 본국의 가족과 친척, 친구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방문과 귀국을 통해 국경을 넘어 관계를 이어 갑니다. 그러므로 한 이주민에게 전해진 복음은 그 사람 한 명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의 관계망을 따라 본국의 가족과 공동체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선교사가 들어가기 어렵거나 복음이 뿌리내리기 힘든 지역에서도, 그 지역의 언어와 문화와 관계를 가진 이주민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믿은 이주민을 단지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 남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동등한 지체로 받아들이고, 말씀과 교리 안에서 양육하여 자기 가족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본국의 가족과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울 수 있고, 언젠가 돌아가게 된다면 그곳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가까운 이주민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를 배웁니다.

동시에 아직 복음과 건강한 교회에 접근하기 어려운 민족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의 2026년 7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는 약 7,162개의 미전도종족이 있으며, 그 인구는 약 36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약 44%에 해당합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복음주의자가 2% 이하이고 기독교인으로 고백하는 인구가 5% 이하인 종족을 미전도종족으로 분류합니다. 이 수치는 개인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는 통계가 아니라, 그 종족 안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양육할 교회가 충분히 세워지지 않은 현실을 보여 주는 선교학적 자료입니다.

교회는 이 현실을 보며 두려움이나 죄책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더 많은 기도와 사람과 자원이 필요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선교 통계가 일정한 수치에 이르면 재림이 일어날 거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재림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낱씨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는 세상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곁에 온 민족을 환대하며, 아직 복음이 충분히 전해지지 않은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린양 앞에 서서 예배할 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순종을 감당합니다.

이 소책자의 핵심

- 선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입니다.
- 선교의 중심은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 교회 세움입니다.
- 선교사는 특별한 영적 계급이 아니라 타문화권에 파송받은 성도입니다.
- 모든 성도는 자신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참여해야 합니다.
- 교회는 선교사를 준비시키고, 파송하며, 돌보고,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 이주민과 외국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보내신 선교의 이웃이자,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역자입니다.
- 교회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바라보며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자소개

최용진 선교사는 칼빈신학교(용인)와 총신대학원(예정합동, M.Div.)을 졸업하고 부교역자 사역을 하다가, 2010년 성남노회에서 국내 이주민 사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이후 전남 광주에 갓플리징(God-Pleasing) 다문화 교회를 개척하여 10여 년간 섬겼고, 2020년 갓플리징교회의 파송을 받아 태국으로 나아갔다. 현재는 GMS 선교사로 태국 우돈타니(북동부)에서 교회 개척과 문서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성경 66권 해설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선교사」, 「은혜의 교리」 등이 있다.

소책자 시리즈의 핵심 문장

복음은 사람을 더 나아지게 하라는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사람의 공로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성경은 진리이며
삶을 비추는 빛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새 생명은
우리를 거룩함과 소망으로 이끍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에서 시작하십시오: 복음이란 무엇인가



GOD-PLEASING BOOKS